

중국

대륙의 장막을 헤치고

담혀진 사회였던 중국.  
그 중국이 이제 장막을 거두고 있다.  
이번 호부터, 배순덕 씨의  
중국 여행기를 통해, 변해가는  
중국의 과거와 오늘을  
둘러 본다.



배순덕

상해공항은 우중충한 느낌이었다. 서울에서 직행항로로 한시간 반. 공항에는 카키색 군복에 둥근 모자를 쓴 나이 어린 군인들이 호기심에 가득찬 눈으로 우리를 건너다 봤다. 공항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초라해 보이는 대합실에 부대시설이라고는 거의 없고 U자형의 수화물 회수대가 덜커덩거리며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원래의 우리 일정은 이랬다. 오전 9시에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홍콩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중국행 입국비자를 받아 상해로 들어간다. 거기까지는 11시간 25분이 소용되는 장시간의 여행이다.

그런데 상해로의 직항은 뜻밖이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중국과의 직행항로는

건국이후 우리가 탄 비행기가 처음이라고 했고 비행기도 정기노선이 아닌 대한항공의 특별전세기였다. 그래서 홍콩을 경유하지 않은 까닭에 처음의 계획보다 시간이 열시간이나 단축됐다. 황재한 기분이었다. 길을 걷다가 보화가 가득 든 가방 하나를 좇아든 것같은 뿌듯함과 설렘으로 여유 있게 공항을 나섰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귀퀴한 냄새, 복적대는 사람들, 한산했던 공항과는 달리 상해시내는 사람의 도시였다. 중국인들 스스로가 상해의 특산물은 '사람'이라고 손꼽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하기가 중국 최대의 상업도시로서 전국 각지의 상인이 모두 몰린다고 하니 그럴만도하다.

중국 사람들은 상해를 '상하이' 또는 '후'라고 부른다. 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송강(松江)의 하류 일대를 옛날에는 ‘후뚜’라고 부르면서 유래한다. 천이백년경에 작은 집락촌으로 시작해서 인구가 천삼백 만명에 면적이 육천제곱킬로미터인 오늘 의 상해시가 되기까지 팔백여년 정도가 걸렸다.

그렇다고 상해시 전체가 그렇게 북적대는 건 아니고 시내 중심가를 이루는 144제곱킬로미터 반경이내에 대부분의 사람이 몰린다. 그곳에는 커피숍과 캔터키치킨과 레스토랑도 있고 백화점도 화려하다.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외국인이거나 부유층의 내국인 이라고 하지만 폐쇄된 공산사회답지않게 있을건 다 있다는 느낌에 당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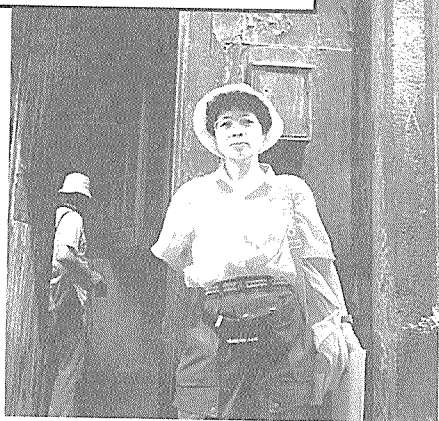
1842년 아편전쟁이 끝나고 남경조약에 의해서 상해항은 외국에 개항되었다.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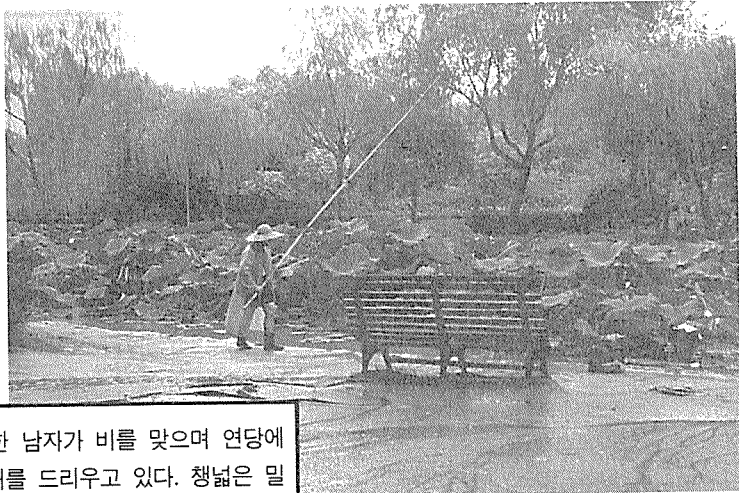
과 미국과 프랑스의 조계가 설치되었던 자리에는 지금도 그들 열강의 자취를 느끼게끔 하는 집들이 즐비하다. 1863년에 영국과 미국의 두 조계가 합병해서 만든 공동 조계의 남쪽에 새롭게 자리잡게 된 프랑스 조계는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외국인 거주지로서 중국의 경찰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으로 존재해 왔던 곳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중국정부가 식수숫자에 따라 분배 해주어 중국인들의 일반 살림집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당로(馬當路) 306弄-4호는 바로 그 프랑스조계안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리이다.

입구에 버티고 서 있는 잠동사니 리어카 행상의 앞을 돌아서 골목안으로 조금 들어가다보면 낡은 이층건물에 일련의 번호가 붙여져있다.

▼ 馬當路 360弄-4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舊址. 붉은 벽돌담과 철이 벗겨진 대문 사이로 비좁은 내부가 들여다 보인다.





▲홍구공원. 한 남자가 비를 맞으며 연당에 기다란 뉘시대를 드리우고 있다. 창넓은 밀짚모자와 회색빛 우의. 마치 수백년을 거슬러 올라간 화첩 속의 그림같은 풍경이다.

1, 2, 3, 4, 5...12

당시 독립운동의 주 거점이 되었던 곳은 1~4호이고 김구 선생은 주로 4호에 머물렀다고 한다. 문을 두드리자 머리가 희끗 희끗한 할머니와 할머니의 등뒤로 일곱살 쯤 되어보이는 꼬마가 함께 얼굴을 내민다.

비좁은 방안, 작은 탁자하나. 할머니는 그 설합속에서 방명록과 태극마크가 새겨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지(舊址)라는 명패를 내어 놓았다. 3.1운동이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통괄하는 최고기관으로서 활용됐던 곳. 해방된 조국의 문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김구 선생의 흔이 깃든 곳, 그러나 지금은 쓰레기더미와 악취 속에 방치되어 중국인 다섯가구의 생활공간의 일부일 뿐이었다.

비는 끊임없이 내렸다.

사박사박. 질척질척.

비옷을 입은 자전거대열이 현란했다. 색깔때문이나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전거 바퀴들의 회전에 현기증이 느껴졌다. 끊어질듯 하다가는 다시 물려오고 끊어질듯 하다가는 다시 물려오고, 그것이 바로 중국인들의 기질처럼 느껴졌다.

비옷을 사 입고 공원을 걸었다. 깨끗하게 단장된 보도블럭과 벤치, 비에 젖은 플라타너스. 우리는 홍구(虹口)공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로신공원이라고 한다. 시각의 차이이다. 일제하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한 장을 차지했던 사건이 있었다.

의사 윤봉길. 애국단 단원이었던 그는 김구 선생의 명을 받아 이곳에서 일본육군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에게 폭탄을 투척,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일역의 병사와 사역의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장 개석은 찬탄했다.

폭탄을 투척했던 바로 그 장소가 홍구공

원. 그러나 지금 투척된 장소는 잔디로 뒤덮여있고 당시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조국을 위해 이국땅에서 산화한 젊은 영혼을 위해 묵념을 하고 싶었다.

공원을 한 바퀴돌았다. 흔적이 없다. 어디쯤일까? 기념비는 커녕 작은 팻말조차도 없었다. 다시 돌아보았다. 여기쯤일까? 아니 좀 더 위쪽일지도 모른다. 침략국 일본의 상해사변 승전축하식장에는 사람들로 붐볐을테고, 살얼음같이 삼엄한 경비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염원한 조선 청년의 뜨거운 피는 가슴속에 폭탄을 숨긴채 숨죽여 그 식장을 지켜봤을 것이다. 바로 이곳 쯤에서.


가지고간 술을 뿌렸다. 점심을 먹던 식당에서 준비해간 술이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뜻모를 함성이 귀에 울리고 빗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깨도 머리도 가슴도 서서히 빗속에 젖어들어갔다.

묵념을 드렸던 바로 아래쪽에 노신의 동상과 기념비가 있었다.

노신이란 중국의 문학가 주 수인 선생의 호이다. 20C초에 阿Q正傳이라는 책을 통

**해방된 조국의 문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김구선생의 흔이 깃든 곳. 그러나 지금은 쓰레기더미와 악취속에 방치되어 있다.**

해 중국 국민들에게 백화문자보급과 계몽운동을 전개했던 중국 신문화운동의 기수이다. 그러한 노신선생의 호를 빌어 지금은 노신공원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곳. 비에 젖은 묘비에는 노신선생묘(魯迅先生之墓)라는 글자가 선명히 쓰여져있다. 그것은 모택동의 친필이다.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공원을 돌아 나왔다. 모든 것이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보아왔던 것들. 수 만년의 역사를 가슴에 품은 채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거대한 대륙의 장막 한자락을 이제 막 들춰보고 있다는 감동과 흥분의 한결으로 나그네의 마음은 빗물처럼 차갑했다. 

〈필자=화가. 호는 창랑(滄浪)〉

### 국민 식생활지침

- ① 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읍시다.
- ②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먹읍시다.
- ③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읍시다.
- ④ 과음을 삼갑시다.
- ⑤ 식사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합시다.